

시즌3 - 6호 | 시편 116~135편

PEACE CHURCH

HAPPY MEAL Kit



해피밀은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복있는 일상을 위한 매일 <경건밀키트> 입니다.

해피밀 시즌 3-6호를 발간하며,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시다.

샬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겨울이 왔습니
다. 나무들은 잎을 잃고, 들판은 하얀 눈에 묻혀
생기를 잃었습니다. 땅은 얼어붙어 모든 것이 멈
춘 듯합니다. 이 차가운 겨울처럼,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차갑게 얼
어붙어 버렸습니다.

시편의 저자들도 이런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들
도 한때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했지
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
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상급을 자랑했던 그들은
순식간에 깊은 절망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데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진 채 차갑게 식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겨울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땅속 깊은 곳에
서는 새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며 나
무는 가지 끝에 새 생명을 준비하고, 들꽃은 눈
아래에서 깨어날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영혼이 차갑
게 얼어붙은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어붙어 죽은 것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
시고, 다시 주를 향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살아
가도록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의 저자들도 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
님께서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
고, 마침내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해피밀 6호를 통해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
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1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Paul Jung'.

12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14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죽음의 수용소>는 저자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빅터 플랭클은 당시 수용소 생활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회상하며, 이를 통해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그가 수감되어 있던 수용소 내 위생상태는 무척 좋지 못해서 밤마다 '이'를 잡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를 잡는 동안 공습경보가 울리게 된다면 더 이상 이를 잡을 수 없고, 밤에 잠도 절반은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런 탓에 저자는 공습경보 없이 이를 다 잡고 잠에 들 수 있는 환경에 대해 감사하며, 이를 "작은 은총"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본문 속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차마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12절).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은혜를 받은 걸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하찮은 존재로 취급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무시를 받던 막내 아들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천대 받던 목동이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인 사울에게는 늘 견제 당하고 핍박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그를 존귀하게 대우해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무시를 받지 않게 되었고, 원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다윗이 받은 은혜는 분명히 빅터 플랭클이 말하는 작은 은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였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서원을 모든 백성 앞에서 갚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13-14절). 구원의 잔이란, 매년 돌아오는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유월절 절기의 식사 중 네 번째 잔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자기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신도 구원하셨다면 은혜의 통일성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을 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신 구원의 잔이 이를 증명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혹은 여러분에게 수치를 줄 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구원의 잔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Q. 갚을 수 없는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니까?

1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할지어다 2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
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다 할렐루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교회 밖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117편은 전체 길이가 고작 2절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무척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화자는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라고 운을 띄웁니다. 하나님은 만물에게 찬양 받기 합당하시므로, 이방인인 너희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방인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화자의 고백은 다소 어색하게 들렸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자의 말이 틀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요나서와 같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모든 성경을 통해 이를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입술을 통해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런가하면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지금도 이방인이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방인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종종 무시하거나 편견을 갖거나 회피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돌이켜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 밖에서 마주친 이웃들이 교회 내 지인이나 어른들이었다면 나의 행동은 여전히 동일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치 요나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 그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거룩한 존재로 여깁시다. 주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대우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신가요?

Q. 어떻게 해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2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3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4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월절 만찬 전에 낭송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이집트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나 업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높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화자가 높이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헤세드"의 특성을 깊이 들여다 본다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헤세드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 전부터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고통 받고 있을 때, 그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내용도 기억하셨습니다(창 15:13).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헤세드에 힘입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화자는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우셨으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을 물으시나 죽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건축물의 머릿돌처럼 그들의 신앙생활에 필수요소인 머릿돌을 예언하셨습니다(시 118:22).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헤세드도 다시 한 번 더 증명되었습니다. 그 머릿돌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영원한 인자하심 안에서 인자하게, 공휼을 베풀며 살아갑시다. 이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나 같이 형편없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머릿돌 되시는 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으며 오늘도 헤세드로 넘쳐나는 하루를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이스라엘이 찬송하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Q. 헤세드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헤세드를 베풀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해 봅시다.

113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14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15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이다 116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117 나를 불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118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119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120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단언컨대 모든 성경 안에서 가장 긴 호흡으로 달려가는 본문을 찾는다면 오늘 시편 119편일 것입니다. 총 176절이나 되는 방대한 구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길어도 독특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구조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전부 등장하는 일종의 이합체시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세로 드립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예컨대 영어 알파벳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1~8절은 'A'로 시작하고, 9~16절은 'B'로 시작하여, 마지막 알파벳인 'Z'까지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글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19편은 '경외'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를 강조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질서와 공의, 정의, 자비, 모든 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행동으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는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를 비판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 모든 알파벳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하나는 빠져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두 마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생각 앞에서 외치십시오. "내가 두 마음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해내셨던 분을 여러분의 은신처로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께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A'로 시작하는 경외와 찬양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찬양의 고백을 'Z'까지 온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이합체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Q. 이합체시처럼 내 마음과 행동을 모두 드리지 못하게 막는 '두 마음'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두 마음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1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2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3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4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리로다 5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6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7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속이는 혀, 진리 되신 그리스도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아주 유명한 투자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높은 수익률을 냈고, 사람들은 그런 메이도프의 실적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메이도프의 삶은 늘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메이도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그는 뛰어난 투자전문가가 아니라 희대의 폰지사기꾼(일종의 다단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자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속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이도프의 가정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살했고,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속에서 암 투병을 하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메이도프 역시 징역 150년이라는 형량과 함께 1조 7천억 달러를 몰수 당하는 등의 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알파한 속임수로 인해 많은 사람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이처럼 속이는 혀는 독극물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화자도 속이는 혀로 인해 환난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런 자들과 아주 오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화자의 마음이 무척 무겁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메섹과 게달이라는 환난의 상징과 같은 장소들을 비유로 사용하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평화와 멀어졌는지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여전히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 이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과 다르게 그는 평화를 말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혀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날카로운 화살에 의해 상처 입을 것이고, 타는 숯불에 의해 고통 받거나 정화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하셨는지, 화자는 평화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말에 대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 그분도 속이는 혀 앞에 놓임 당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법정에서도 그분은 늘 자기 유익을 구하는 존재들의 세 치 혀로 인해 환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늘 평화를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평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로 인해 고통 당하고 계신가요? 혹은 현혹되고 계십니까?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속이는 자와 같아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술에 진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금요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속이는 혀는 어떤 마음으로 가득한 존재입니까?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Q. 진정한 평화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 평화를 말할 힘을 간구합니다.

온 가족 <시편 116편> 묵상하기

가정에배 미니홈피

1. 시편 116편을 필사해봅시다. (청소년, 청년용)

12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14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2. 시편 116편의 의미를 나눠봅시다. (가정의 대표자)

대표자가 '월요일 해피인사이트'를 읽거나 혹은 교회 유튜브를 통해 '토요일 미니홈피 영상'을 함께 시청합니다.

3. 핸드폰 배경화면을 변경하고 한 주 동안 묵상해봅시다. (온가족)



시편 116편 배경화면 다운로드 (QR 코드 스캔)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사람은 어렵고 힘들다 보면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어떤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하며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여러 군데 손을 내밀어 보아도 아무 도움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외면을 당하다 보면 그때 비로소 눈을 들기 시작합니다(1절). 신앙이란 믿음으로 눈을 드는 행위, 또는 믿음으로 위를 우러러보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고난은 마치 광야와도 같습니다. 광야에선 눈을 들어 아무리 사방을 바라보아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께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까닭은(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까닭은) 바로 우리의 눈을 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부터 만나와도 같은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이 만나(은혜)는 오직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2절). 부모는 자녀를 낳기 전 태어날 아가를 위해 오만가지 다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이 호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절묘하게 조정하셨으며, 그 외에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한 사랑과 배려가 천지창조에 담겨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섬세한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6번이나 강조하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굳건한 확신을 주십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택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눈을 들어 주님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싸인을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Q. 나는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처음부터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6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 시를 읽는 수많은 독자에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한 기도를 당부하며 권면합니다(6절). 즉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모두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7절).

시인이 이토록 예루살렘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중심 본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훼손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훼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그저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다니는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과, 나의 미래를 좌우하는 곳인 줄 알고,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결국은 나 자신도 지키고 보호하는 영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힘쓰는 일꾼은 늘 필요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마 9:37).”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의 개인기도 가운데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몇 할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Q. 신앙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야 내 신앙도 더불어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기도는 곧 나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1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 2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 3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 4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간절함이 담긴 예배**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나의 눈과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바라본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갈망하면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선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는 중요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와 주고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러한 권리를 갖고 계신 주인이시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현재 상황은 매우 심한 멸시와 조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가 3절과 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기를 마치 종이 주인의 손에서 상이 내려질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갈망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며 고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을 통하여 부어지는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시편의 저자와 달리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여러 생각과, 고민과 감정적인 소용돌이로 예배시간을 채우는 모습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갖고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어떠한 기대하는 마음과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Q.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의 생각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빠져있는 상태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2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3 그 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4 그 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 그 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6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7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8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기대하고 소망가운데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에서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감격과 감사가 고백 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적들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8절 말씀을 보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시인은 이 고백을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며 고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몰두되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에 나오긴 하지만 힘없이, 맥없이,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날에 주님께서 나를 기적적으로 도우셨던 일들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구원 사건을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삶의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나의 미래가 당장은 암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선 과거에도 이보다도 더한 어려움을 뛰어 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믿음과 소망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선 그 마음의 탄원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 주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나요?

Q. 우리는 매일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2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3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4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5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평안의 축복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평안의 축복을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평안의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통치력이 의인의 땅에 미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3절).

4-5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자신이 누리는 평안의 축복을 고백하며,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대 하셔서 그들에게 요동하지 않는 견고함의 은총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랄라 할지라도, 이것은 기도로 구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평안의 축복입니다. 믿음 생활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으나,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때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그저 우연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요동함이 없고 견고하며 평안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할 때,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체험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동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막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였기에 비로소 누릴 수 있었던 평안의 축복을 기억해봅시다.

Q.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베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누리기 원했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 식구 다 같이 <시편123편> 색칠하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미취학(3~7세) 자녀와 함께 말씀으로 색칠하는 하루

시편 123편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색칠공부를 해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요.



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4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리는 자는

오늘 시편 말씀에는 두 감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슬픔입니다. 1-3절 말씀은 온전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반면에 4-6절에는 '울다'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 6절 말씀의 두 단어를 통해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감정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단순히 기쁨만 종일토록 지속되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는 기쁨 담보되어 있고, 전제되어있지만 동시에 기쁜 만큼이나 슬퍼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1-3절 말씀은 포로에서 자유케 됨으로 인한 기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깨달을 때 기쁨이 너무나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전히 남은 인생의 굴곡과 시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울고 슬퍼합니다. 자주 그러기도 합니다. 인생의 풍파와 시험과 고난 앞에서 울고 슬퍼합니다. 상실의 아픔과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의 불확실함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5, 6절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현재는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지만, 마침내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허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슬픔과 울음을 낭비해선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기자는 슬픔과 울음 속에서도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온 인생의 눈물 앞에서 주저앉아선 안됩니다. '눈물이 그치고 나서 움직여야지'도 아닙니다. 흐르는 눈물을 머금으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일 수 있고, 그것은 눈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열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이 흘러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소망은 마침내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머금으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히 12:) 그리하시라, 죄인인 우리를 단으로 거두셨습니다. 그 분의 길을 따라나아가는 수원평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현재 눈물을 머금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하는 사명지가 있으신가요?

Q.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 중의 화살 같으니 5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오늘날 우리는 해를 거듭할 수록 불면증 환자가 늘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18년에 60만명 가량 되었던 불면증 환자가 2022년에는 72만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왜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본문은 불면증의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 수고에 너무나도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자신의 성취와 목적을 스스로 쟁취해야만 한다는 시대적 사고로 인하여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능력주의'라는 말은 이 시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능력이 미달되면 그 사람은 실패자이며,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매우 큰 패착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들 모든 상황과 정황의 도움과 섭리가 없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만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1절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능력으로 해내려고 애쓰는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 바벨론의 이야기를 기억해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능력과 기술로 높은 탑을 쌓으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니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한다는 능력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생하고, 실패의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지 마십시오. 저는 설교 전에 앞에 늘 하는 마음가짐은 '내가 아무리 원고를 철저히 쓰고, 완벽히 설교를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말씀의 유효한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결과에서 자유할 수 있으며, 결과로 인해 비참 혹은 교만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분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 분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잠도 잘 잡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는 말씀은 '그가 잘 때에 여호와께서 여전히 일하시니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에 밤낮 가리지 않고 섭리하실까요? 그 분의 일이 나의 일이 될 때 우리는 잘 수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요즘 근심 걱정 불안해 하시는 요소가 있으신가요? 그 요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일인가요?

Q. 오늘 밤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창조 때에 아담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서 수고한 소산 만큼의 적당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노동의 개념은 공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수고롭게 일을 하여도 땅은 적당한 양의 소산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땅이 척박해졌고, 가시덤불이 생겨, 인간의 노동을 더욱 수고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불평등과 빈부격차는 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네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과일이었는데, 이는 포도를 통해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포도주는 잔치에 필수적인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례잔치를 생각해 볼 때에도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 끊어진 잔치집의 기쁨을 기적을 통해 되찾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부부 간의 기쁨이 끊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은 정복하려 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삶에는 끊어졌던 창조 때의 원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시편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자녀는 부부의 풍요가 되는 것이 원래 창조 역사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세계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그들에게 태어난 자식들은 서로 살인을 저지르며 끔찍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풍요가 아니라 풍비박산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야근해도 매월 빠듯한 살림, 부부간에 있는 여전한 기싸움과 불신, 자녀들의 막돼먹은 행동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편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타락한 세상 속에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의 가정에는 분명 작은 천국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우리 가정에는 어떤 타락된 일상의 모습이 있나요?

Q.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1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2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3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4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5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6 그들은 지봉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 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7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8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 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구조적인 악의 줄이 끊어졌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어릴 때 부터 많은 대적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집트가 그랬고, 블레셋이 그랬으며, 앗수르와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시편가자는 노래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 부터 여러번 나를 괴롭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편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어려서부터 함께 있는 대적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어두운 본성이며 죄의 굴레이고 악한 본능입니다. 그러한 죄와 악은 늘 우리 속에서 거룩한 심령을 위축되게 만들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을 방해하고, 거룩을 어색하게 만들기 일쑤입니다. 그러한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구조적인 악으로 자리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쉽사리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도 난리와 소문에 두려워 떨기 일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구조적인 결함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시편 본문에서 유일하게 구조적인 결함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구조적인 악을 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케하사 죄와 사망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져있을 그 때에 성령님께서서는 우리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야함을, 지금 하는 행동의 부도덕함을, 지금 가진 마음 가짐이 거룩하지 못함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말미암아 세워진 성령의 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구조적 결함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쫓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죄의 옛 습관이 있으신가요?

Q. 그러한 죄 중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귀 기울여보세요.

1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3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4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5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7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8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원 목사 죄책감의 수렁 속에서

지금 시편기자는 깊은 곳에서 주를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기자는 모종의 수렁에 빠진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렁이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현상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책감의 수렁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3절 말씀에는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탄원하는 장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빠진 수렁은 수치감과 죄책감의 수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죄책감을 무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의 유행과 집단의 이성 그것에 조장합니다. 최근에 한 유명 배우와 유명 모델이 혼외자 이슈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에 대중은 그 둘의 윤리적인 부족함에 지탄을 보냈으나, 이내 문화학자들, 정치인들은 "비혼을 선택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혼외자를 선택한 여성의 권리를 인정 해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여론조사에서 '비혼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30%에 육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고, 또 공인으로서 지위를 잃을 수 있었던 윤리적인 이슈가 요즘은 큰 경각심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윤리적 기준이 무너지고 이 시대입니다.

시편기자는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죄'로 여겨지게 하시는 분은 3절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문화와 유행에 따라 죄책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절대 기준되시는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자신의 죄됨을 밝혀내고, 그 가운데 충실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준(문화, 유행)에 따라 무죄로 드러난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그분의 기준되심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변명 세상 유행과 문화적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만이 자신의 죄악을 '사유(죄 사함)'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만을 기다립니다. 진정한 죄에서의 구원이 오직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수렁에 빠진 듯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수렁에서 건져낸 듯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음으로 죄책감에 휩싸이십니다. 여호와를 부름으로 구원의 감격에 덮이십시오.

하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최근 느끼는 죄책감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기준으로 죄책감을 느끼나요?

Q. 죄책감의 수렁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 식구 다 같이 <130편>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1. 아동(11~13세) 자녀와 함께 말씀먹기

1) 우리 가족 성경 읽기: 시편 130편,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온 가족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읽기를 진행해보세요. 오늘은 시편 110편 입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기를 진행하셔도 되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 대표해서 읽어도 좋아요!

2) BINGO! 빙고타임! 시편 130편을 읽으며 기억에 남는 단어를 골라 3x3 빙고를 완성해보세요.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용서하심을 받자.

1. 12월 20일 해피밀을 읽어주세요.

2. 아이들과 함께 최근에 느낀 죄책감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3. 최근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죄책감을 느껴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이슈가 있다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눔을 진행해보세요. 아이들의 윤리적인 기준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4.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변명하지 않는 우리 가정이 되게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2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떼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떼 아이와 같도다 3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각자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 축구, 일, 신앙 생활, 도덕 등 모든 것들이 서로 비교되고 평가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비교를 통해 교만하기도 하고 때론 위축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고 위축에 들게 하는 포인트는 '각자의 삶'입니다.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도 같습니다. 사실 조금만 더 삶의 영역을 넓혀보면 내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최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것들이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위축되어 있던 부분도 시야를 더 넓히면 위축될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삶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기준과 경험으로만 각자의 삶을 판단하기에 삶의 지역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요한복음 6장 27절)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두고 비교하며 마음을 쓰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젖 떼 아이와 같습니다. 젖 떼 아이는 무언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름대로 말귀도 알아 듣고, 혼자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아이는 아이입니다. 절대적 의존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머니의 도움이 없으면 한 시도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아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젖 떼 아이와도 같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크게 착각하지만 실상은 젖 떼 아이입니다. 주님께서 한 시도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곧장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모든 공기와 물, 하늘과 땅,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한 숨, 일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오직 여호와만 바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고,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한 없는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교만함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Q. 젖 떼 아이들을 관찰해보고, 나의 신앙과 연결시켜 보세요.

1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 6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7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8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9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10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11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돌지라 ... 17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뽀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18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겸손**

시편 131편을 통해 우리는 젓을 댄 아이와 같음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참된 신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다윗의 스토리입니다(삼하 6장). 6-10절은 솔로몬의 스토리입니다(대하 6:42-42). 두 스토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막, 언약궤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그들의 나라를 통치하시길 기대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약하고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모으고, 군대를 편성하고, 지혜로운 정치를 통해 왕의 왕 됄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왕들이 그렇게 자신의 지위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주장하던 왕과 나라는 결국 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 때 그들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강력한 왕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 왕은 죄와 저주로부터 모든 인류를 자유케할 진정한 왕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참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하루 전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누군가가 나에게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린 적이 있으신가요?

Q. 성탄절 전날에 우리 가정은 주로 무엇을 하나요?

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3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살롬!**

명절이나 행사를 맞아 1년에 몇 번씩 가족과 재회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집에서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항상 즐겁고 좋은 시간이 될까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가족이라고 해도 가까이 살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기고 때때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옛 이스라엘의 생활양식은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절을 따라 기르고 있던 양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분배의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행복한 이야기만 가능할까요? 양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언제 이동해야 하는지, 어디가 적합할지 다양한 문제를 두고 그들은 의견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론의 수염에 흘러 내리는 보배로운 기름 같고 혈몬의 이슬과 같습니다. 이것은 거룩함과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이들은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혈몬의 이슬은 모든 목초지에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중요한 주제는 흘러내림입니다. 기름과 이슬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 오십니다. 주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도록, 생명력을 가지고 살도록 힘의 원천이 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롬을 이루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살롬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롬을 외치고 영적인 생명(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오늘 살롬을 고백해야 하는 대상이 있나요?

Q. 이번 주에 살롬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 보라 밤에 여호와와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와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2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3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에게 받은 친절로 인하여 따뜻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의 친절이 의도적이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무언가를 바래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친절을 베풀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속은 느낌 때문에 매우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함이, 그분의 권능과 위엄 앞에 경외함이,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기대함이 예배의 목적이 되시나요? 혹은 경제적인 복을 얻기 위하여, 심적인 안정을 위하여, 다른 이들과의 교제를 위하여, 나의 개인적인 목표를 위하여 예배하고 있나요?

1절에서는 예배드리는 자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와 모든 종들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는 모두 나와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호와와 종이 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종들은 예배해야 합니다. 선, 후의 문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려 예배드리는 것, 물질을 구별하여 현금생활하는 것, 섬김과 봉사 등 모든 것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보험이나 보상처럼 주님께 무언가를 바라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순례자의 시편입니다. 모든 순례를 마치고 성전에 올라가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자의 고백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모든 세상을 돌아보며, 모든 인간사를 겪으며 하는 그의 고백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세어보시길 소망합니다. 다 세어보기도 전에 우리는 회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에 폭 잠기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인가요?

Q.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 할렐루야 여호와와 이름 찬송하라 여호와와 종들아 찬송하라 ... 4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 5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 8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 15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 19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0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1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할렐루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모자이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찬양의 한 소절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싶은 저자의 마음이 돋보입니다. 마치 모자이크처럼 성경 곳곳의 이야기를 이곳에 모아 두었습니다.

1절은 113편 1절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2절은 134편 1절과 유사합니다. 4절은 신명기 7장 6절, 14장 2절과 비슷하고, 7절은 예레미야 10장 13절, 51장 16절을 각색한 것 같습니다. 10-12절은 시편 136편 17-22절에서 유래된 것 같습니다. 13절은 102편 12절과 출애굽기 3장 15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신명기 32장 36절, 15-18절은 115편 4-8절을 간단한 형식으로 옮겨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 20절은 시편 115편 12, 13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135편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전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며, 신실하게 붙드시는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크신 주님께서 작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제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여 강대국 애굽을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주장하던 신들은 다 허울뿐인 우상입니다. 그들의 입과 눈과 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들을 찾고, 서로 나눠봅시다.

Q. 우리의 삶에 있는 은혜들을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 식구 다 같이 <시편 132편>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 1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 2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 3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 4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 5 여호와와 더불어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 6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 7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 8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 9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 10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 11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 12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 13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 14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으로다
- 15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 16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 17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 18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COME

평안교회
소개영상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Tel 0507-1365-8119

E-mail peacechurch@gmail.com

Adress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로218번길 110 수원평안교회 **Homepage** www.peacechurch.kr